

# 나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육성 예산 61억...전년보다 40% ↑

### 12개 이전도시 중 증가율 최대 한전 2.6배 증가 30억6800만원 4개 농업기관 '학점 연계' 강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올해 지역인재 육성 예산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들이기로 한 예산은 총 61억1000만원으로, 매년 20억원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다. 10일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세운 지역인재 육성 예산은 61억1000만원으로, 전년 실적(43억7800만원)에 비해 39.6%(17억3200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과 전국 11개 혁신도시(충남 포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지역인재 육성 예산은 585억5900만원에서 582억9000만원으로, 0.5%(-2억6900만원) 감소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역인재 육성 예산은 2019년 28억9300만원, 2020년 43억7800만원, 올해 61억1000만원 등 매년 20억원 가까이 늘고 있다. 울산(-49.2%)과 전북(-39.6%), 세종(-28.7%), 경북(-15.0%), 강원(-12.2%), 충남(-3.3%) 등 6개 도시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역인재 육성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전체의 48.0%에 달하는 279억9800만원을 올 예산으로 세웠다. 경북(67억6600만원)과 광주·전남(61억1000만원), 부산(44억3600만원), 경남(43억1100만원), 충남(26억9000만원), 전북(20억4600만원), 충북(12억8700만원), 강원(11억7100만원), 울산(7억4300만원), 세종(6억

8100만원), 제주(5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 기관들은 올해 '학점연계과정'과 채용 설명회·장학금 지원 등 지역인재를 양성할 62건의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올해 지역인재 육성 예산을 세운 곳은 모두 11개 기관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11억9500만원)의 2.6배 수준인 30억68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 한전의 지역인재 육성 예산은 전체의 절반(50.2%)을 차지한다. 한전KPS도 전년보다 53.2%(3억7900만원) 증가한 10억9100만원을 책정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76.7% 증가한 5억3000만원, 전력거래소는 54.7% 오른 8200만원 등을 올 예산으로 세웠다. 한국인터넷진흥원(7억8300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억25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300만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1200만원) 등도 전년보다 예산을 늘렸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지역	이전기관 수	2020	2021	증감액	증감률
계	152	58,559	58,290	-269	-0.5
대구	12	27,450	27,998	548	2
경북	13	7,964	6,766	-1,198	-15
광주·전남	17	4,378	6,110	1,732	39.6
부산	13	4,151	4,436	285	6.9
경남	11	3,647	4,311	664	18.2
충남	8	2,783	2,690	-93	-3.3
전북	13	3,390	2,046	-1,344	-39.6
충북	16	1,001	1,287	286	28.6
강원	13	1,334	1,171	-163	-12.2
울산	9	1,463	743	-720	-49.2
세종	19	955	681	-274	-28.7
제주	8	43	51	8	18.6

※자료: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나주 혁신도시 농업분야 공공기관들은 올해로 세 번째 지역대학 학점과정을 진행한다.

혁신도시 4개 기관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제3기 빛가람 미래농업인재 육성과정'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벌인다. 이들 기관과 나주시는 청년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상생협력을 위해 '농업 분야 공공기관 상생협약'을 만들었다. 지난 2019년 신설된 이 과정은 농업 분야 창업과 농업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에게 기관 주요 사업과 사업 현장 소개, 채용제도 설명 등 취업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참여 인원을 8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생은 첫째 40명에서 매년 20명씩 늘었다.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동신대 등 지역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은 수료 후 최대 2학점과 수료증을 받으며 조별 과제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상장과 장학금도 받는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픈 캠퍼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100% 국내산 농축산물' 가정간편식 출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두번째)가 농협 6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출시하는 가정간편식 2종을 선보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100% 국내산 농축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을 12일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볼고기 세트 500g' 6개와 '컵밥 세트 920g' 1만개로, 한정 판매된다. 무안과 함평에서 생산한 양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특산품을 원료로 사용했다. 특히 농협 가정간편식은 더본코리아(대표이사

백종원)와 함께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제품이다. 농협은 원료 공급과 판매를 맡고, 더본코리아는 조리법 개발과 생산을 맡았다.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는 SBS 예능 '맛남의 광장' (12일 밤 9시 방영)에서도 해당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국 하나로마트 주요 매장과 온라인 판매처인

농협몰(nonghyupmall.com), 농협라이브리(nhlyvly.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협 가정간편식 출시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100년 농업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 우수정보보호 스타트업 7개사 육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월 유망 보안기술을 보유한 국내 창업기업 7곳을 선발해 약 7개월 과정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기업은 차세대 다중 생체인식 보안인증 기

술을 보유한 '옥타코'와 '쏘파' (사이버 위협 탐지 서비스), '테이텀' (멀티 클라우드 통합 보안 규정 자동 관리 솔루션), '원모어시큐리티'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연계 이동경로 시각화 솔루션), '제이투씨' (홍채인식 통합 솔루션), '아이디랩'

(동물 홍채인식), '키워드랩' (3차원 이미지 지문 인식) 등이다. 이들 기업은 3개월 동안 ▲글로벌 보안 시장 진출 전략 및 기술개발 지원 ▲수출 인증·규격 상담 ▲투자전략 수립 및 기업설명회(IR) 피칭 교육 등 국내 지원을 받는다. 지난 6일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K-글로벌 시큐리티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수소에너지 사업 진출 본격화

### 전주·완주수소시범도시 통합안전 운영센터 구축

한전KDN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에너지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전KDN은 전주·완주수소시범도시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생태계 조성사업을 벌인다. 이 시범사업은 전주·완주와 안산, 울산 등 3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한전KDN은 수소시범도시의 안전을 총괄할 통

합안전 운영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통합안전 운영센터는 수소시범도시 내 시설 및 자원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으로 공급과 수요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안전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또 현장 기술자가 스마트 기기 가상·증강현실(VR·AR) 서비스를 활용해 관제센터와 비대면 진단을 진행한다. 한전KDN은 수소시범도시의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해 수소를 이용한 교통, 인프라, 주거 등 수소생태계의 확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비대면 방학에 완구 매출 크게 늘었다

### 광주 3개 이마트 63.7% 증가

올 여름 방학에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완구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10일 광주지역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들 점포의 완구 매출은 1년 전보다 6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내에서 여럿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매출은 전년보다 46.3% 늘었고, 블록 완구는 29.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캐릭터(인형) 완구가 전체 완구 매출의 7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블록 완구나 보드게임 매출 비중이 커졌다. 올해 기준 이마트 완구 매출 가운데 블록 매출이 1위를 차지했으며, 올 들어 캐릭터 완구 매출 비중은 60%로 줄었다.

최근에는 상품의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컬렉팅' 완구가 인기몰이 중이다.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럭키박스'로도 불리며, 비슷한 상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연속 기획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20~30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추억의 비디오키템과 콘솔게임이 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의 월별 완구 매출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가장 높았고, 5월-11월-10월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도 12월-5월-2월-9월 등으로 명절 전후 완구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올해 완구 소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블록, 놀이완구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